한방계 전체 활성화 다짐

생약협회 제27차 정기총회

생약협회 제27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경동프라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최종통과된 96년 총예산액은 4억9천50만원, 지난해 3억9천9백72만원보다 약23%상향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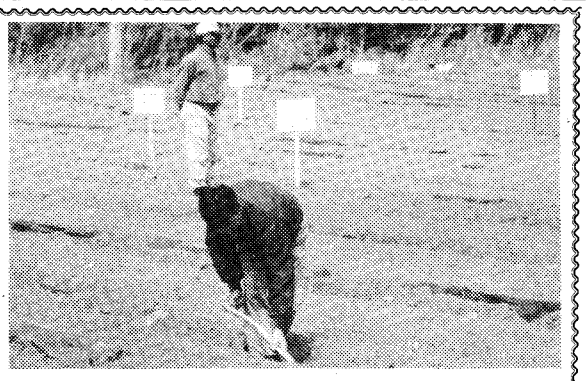
생약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생약살리기 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생약농업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생약재의 우수품종 육성, 일괄수매 방안 등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우리생약살리기가 궁극적으로는 한방계 전체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리생약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이종용회장)발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 96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생약상설전시관 건립 추진 △자생약초 서식지 현장답사 및 채집 △주말농장개설 △제3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개최 △제2회 하계수련대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홍기, 지황등 계약재배 △전략수출품목 개발 △생약을 이용한 차, 음료의 개발 △약용작물도감등 생약의 학술도서등의 출판 △국내 생약재 전시포 설치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등이다.

◇생약협회 제27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경동프라자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초농사를 시작한 이종용 회장은 최근, 연천군 전곡리 소재 2만평 밭을 임대해 황기를 파종했다.

"지난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농사를 좀더 잘 지어볼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회장은 "생산자단체를 이끌어 가는 책임감 있는 장으로서 생산농가의 입장과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대변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우리생약 살리기 추진을 위해 직접 땅을 일구게 됐다"고 설명.(사진은 지난 3일 황기 파종후 밭을 다듬고 있는 이종용 회장).

지황수매가 타결

kg당 4천7백원, 차액보상조건

생산자단체와 실수요자간의 긴급타리기로 팽팽히 맞서온 국내산 지황 수매가격이 마침내 1kg당 4천7백원에 타결됐다.

당초 생약협회가 제시한 적정수매가는 kg당 6천원 선, 수급조절위원회는 차액 1천3백원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금 1억원을 향후 수입지황(1천톤) 반입시 생약협회에 보상키로 했다. 따라서 국내산 건지황 수매가는 사실상 kg당 6천원에 타결을 본 셈이다.

단 수입결정으로 부터 3개월 내, 통관 조건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생약협회와 약공협조는 이같이 협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미 통관 완료된 수입지황 5백톤을 조속 배정키로 합의했다.

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황생산농가 대표들은 지난달 13일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실사후 약공에서 산출한 지황수매가 kg당 4천88원에 이의를 제기, 합리적인 지황건조비율과 비용의 재산출을 요구했었다.

결국 kg당 6천원에 수매가 합의를 본 셈이긴 하지만 96년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 수매방안은 따로 논의돼지 않은채 올해도 국내산 지황 수매문제는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황재배농가 대표자회의 이모저모

○…경북 김천의 농민대표 허영씨에 따르면 수확후 훑을 털어낸 생지황 61kg을 26시간이 지난후 다시 계근해 보니 60kg으로 1kg의 수분이 감량됐다. 불과 26시간에도 이처럼 수율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수확한 달로부터 3~4개월이 지난후에는 많은 수율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산농가들은 따라서, 실사당시 생지황 건조비율 5:38대1과 당초 우리협회가 제시한 6대1비율의 차이는 3~4개월간의 수분감량이 가져온 결과로 이같은 수율차이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측의 요구대로 생산농가에서는 생지황을 60℃이하 저온에서 건조한 결과 고온건조시 보다 인건비 연료 전기료등 기타 부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됐으며 건조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따라서 실상 당시 소량을 80℃이상의 고온에서 건조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건조비를 산출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실제 지황재배농가 개개인이 건조시설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건조시설이 갖춰진 곳까지의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한 실정 이라고 토로하고 이같은 농가현실을 감안하여 운반비와 도선비 상하차비 등의 기타경비도 건조비용 산출에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 96년 지황계약재배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지난해는 처음 시도한 탓에 비싼 종묘값과 재배경험부족이 원가상승 요인이 됐다고 자체분석.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체 종근확보 및 건조기술 향상,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농가들은 기대.

기술정보

◇참당귀는 표고 4백m 이상의 고랭지에서 묘를 길러 재배하면 장다리 현상은 크게 줄어들면서 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다리현상 발생률은 묘를 4백m 고지에서 키우면 37.5%, 6백m에서는 20.8%로 낮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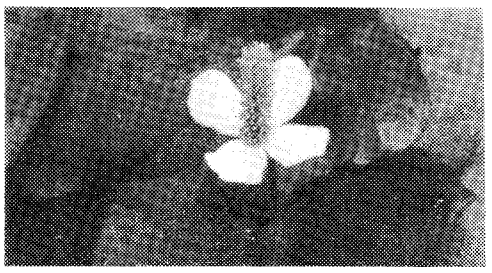
참당귀, 장다리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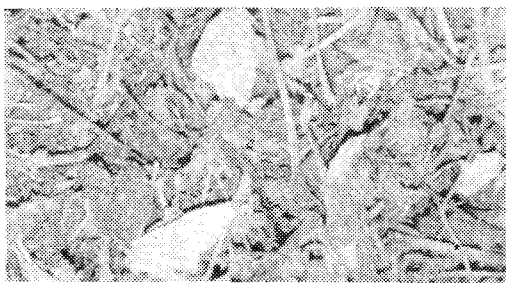
지만 2백m에서 하면 69%로 높아진다는 것. 또 말린 뿌리도 2백m에서는 10a당 93kg이 생산된 반면 4백m에서는 2백35kg, 6백m에서는 2백95kg으로 크게 늘어났다(경북농진원).

인사

▲양영재 경남 진주시 서부사무소장 96년 3월 2일부 ▲김무영 경남 창원시 동부사무소장 96년 3월 2일부 ▲강옥희 경남 진주시 서부공판장장 96년 3월 2일 ▲김덕기 충북 제천시 공판장장 96년 3월 2일부 ▲성기헌 충북 충주시 동부공판장장 96년 3월 2일부 ▲김찬진 충북 충주시 서부공판장장 96년 3월 2일부 ▲윤양의 인천 남동구공판장장 96년 3월 2일부 ▲양성진 경남 진주시 사무소장 96년 3월 2일부

삼백초 종근 분양안내





봄 파종기를 맞이하여
농가 고소득 약용작물인 삼백초 종근을 분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효능 : 항암제, 황달, 부인대하증, 해독제, 부종, 각종염증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각종 한약재 규격품 전문 생산업체 —

삼 오 제 약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78번지
전화: (0591) 54-7530. 휴대폰: 011-583-7530